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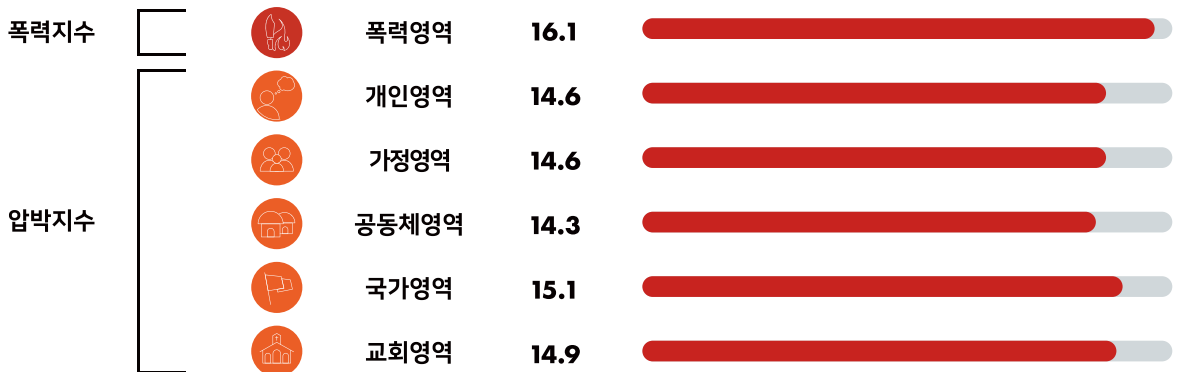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6위

시리아 (SYR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지하디스트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HTS)이 이끄는 세력이 시리아를 대체로 통제해 왔다. 광범위한 무질서와 취약한 통치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국가(IS) 통치 이후로 전례 없는 수준의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 양상에는 사망자 급증과 교회 공격 증가가 포함된다. 2025년 3월 선포된 새로운 임시 헌법은 권력을 대통령직에 집중시키고, 이슬람 법학을 입법의 1차적 근원으로 규정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압박과 종파적 긴장도 커지고 있는데, 2025년 3월과 7월에 발생한 치명적인 충돌이 이를 보여주며, 이 충돌은 주로 알라위파와 드루즈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독교인들도 사상자를 냈다. 2024년 10월 이후 이슬람국가(IS)가 군사 작전을 재개한 것, 그 중 2025년 6월 다마스쿠스의 한 교회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불안감을 더욱 강화한다. 국제 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경제적 전망을 제시하지만, 회복 노력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실제로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시리아 (SYRIA)

국가 정보

지도자 :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
인구 : 25,427,000명
기독교인 수 : 300,000명(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00,000	1.2
무슬림	24,646,000	96.9
무신론/불가지론	477,000	1.9
기타	4,000	0.0
	합계	100%

출처¹

1946년 독립을 획득한 이후, 시리아는 정치적 불안정, 군사 쿠데타, 그리고 분쟁에 직면해 왔다. 아사드 일가는 197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통치했으며, 이때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아가 이끄는 HTS 연계 세력이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면서 수십 년간의 세속적 바트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부가 출범했다. 이러한 전환은 종교적 소수자들의 정치·사회·안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내전 기간 내내 기독교인들은 전투와 강제 이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취약성은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부재, 서방과의 연계 의혹, 그리

고 아사드 정권과 가깝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임시 정부 아래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 심화되어, 기독교 공동체가 표적 폭력, 차별,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고 있다.

2025년 3월 임시 헌법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이슬람 법학을 입법의 주요 근원으로 확립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수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분절된 상태이며, 종파적 세력과 무장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6월 다마스쿠스의 교회 폭탄 테러와 같은 이슬람국가(IS)의 공격을 포함한 지속적인 무력 충돌은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적으로는 기반시설 붕괴, 장기간의 제재, 자본 유출이 생계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결속을 훼손해 왔다. 14년이 넘는 분쟁 이후 2024년에는 시리아인의 약 9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했는데, 이는 전쟁 이전 3분의 1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25년 중반 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재건과 상업적 경로를 열었지만, 그 영향이 기독교 공동체에 어떻게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불안정, 자산 손실, 이주, 취약한 법치로 인해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은 제한적이다.

¹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선동적 발언은 기독교인들의 불안과 고립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압력과 종파적 규범은 교육, 복장 선택, 사회적 교류에서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 새 정부 아래에서 시리아의 교육은 이슬람 이념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 이전의 역사와 성평등이 제거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쿠란 해석이 포함되어 적대감을 조장한다. 비판자들은 이를 교육의 이슬람화와 시리아 정체성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본다.

2025년 10월 시리아는 지역 선거인단을 통한 엄격히 통제된 간접 의회 선거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수자 대표성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기독교인은 1명만 당선되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소수자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박해와 불안정, 그리고 시민적·종교적 자유의 침식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현대 시리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시리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동부(알하사카, 카미술리)에서는 쿠르드 통치 아래 비교적 안전한 편인 반면, 해안 지역의 소규

모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 압력에 중간 정도로 취약하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같은 도시에서는 극단주의 단체와 보수적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더 큰 압박을 경험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튀르키예 영향권과 IS 세포가 존재하는 이дли브 및 일부 북부 지역으로, 강제 이주와 공포가 지배적이다. 홈스와 와디 알나사라 지역과 같은 시리아 중부에서도 불충분한 치안과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압박이 높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는 정교회가 가장 큰 집단이며 그 다음이 멜카이트 가톨릭이다. 이들은 현 정권과 극단주의 단체 양측으로부터 증가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활동이나 보수·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적 지연, 지속적인 감시, 종교 지도자와 교회를 겨냥한 표적 위협이 있다. 교회들은 개종이나 지즈야(인두세) 납부를 요구하는 전단을 포함해 모욕, 폭탄 공격, 협박과 같은 위협을 받는다. 과거 정권과의 역사적 연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은 특히 정교회에 대해 위협을 더욱 키운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또는 드루즈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강한 가족 및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며, 특히 수니파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개종이 심각한 폭력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람주의 급진화의 확산은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저항을 강화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는 제한적인 법적 인정, 서구 지향으로 여겨지는 인식,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 무슬림 개종자 수용 등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 이들은 폐쇄, 감시, 제한 조치에 취약하다. 또한 전통 교회들이 이들을 외부 경쟁자로 보면서 발생하는 긴장도 겪고 있다.



© Unsplash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미 박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슬람주의적 억압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지하디스트 단체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개종 압력, 교회 공격, 머리 스카프 착용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 기독교 상징물의 제거, 그리고 언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새 정권 아래에서도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은 기독교인 박해를 계속해서 추동하고 있다.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탄압, 감시, 교회 통제, 비판적 활동가 체포를 통해 종교적·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보안 당국이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존재는 예배자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헌신이라기보다 종교 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씨족 억압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국가 치안의 부재로 인해 시리아인들은 점점 더 부족의 보호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북부 쿠르드 지역과 중부 사막 지역에서는 이슬람과 얽혀 있는 부족주의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반역으로 간주하며, 그 결과 가족과 지역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가 나타난다. 셰이크(부족 또는 씨족 지도자)는 재산 몰수, 구타, 심지어 개종자 처형을 포함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HTS의 장악은 감옥 탈주를 포함한 혼란과 무법 상태를 초래했으며, 빈곤과 기능하지 않는 사법 체계 속에서 범죄를 증가시켰다. 기독교인들은 부족 또는 정치적 보호가 제한적이어서 취약하며, 절도, 갈취, 납치, 폭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새 정권 아래에서 전통적 부패의 가시성이 줄어든 측면이 있더라도, 제도의 취약성과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무장 갱단이 처벌받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활동할 수 있다. 새 정권 아래에서 전통적 부패의 가시성이 줄어든 측면이 있더라도, 제도의 취약성과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무장 갱단이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내려 있으며, 군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독교인들을 갈취, 협박, 또는 재산 몰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잦다.

교단 보호주의

시리아에서는 역사적 교회들, 특히 그리스 정교회가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종종 소규모 또는 비전통적 교파들의 역할을 제한한다. 이러한 집단은 모임에서 배제되거나, 이단 또는 개종 권유 혐의를 받거나, 사회적 압력을 경험한다. 내부 경쟁과 제도적 보호주의는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일부 비전통적 기독교인들은 서방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아 박해에 더 취약해진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지속적인 불안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 집단 출신 여성들은 급진 단체와 개인에 의한 납치, 성희롱, 강간의 위험에 처해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위협, (성)폭력 시도, 납치에 대한 공포가 특히 충돌 시기와 불안정한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 국가 전문가가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검문소, 직장, 대중교통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문화적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들이 폭력을 신고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여성 개종자들도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무슬림과의 강제결혼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을 당하고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 가르침 및 의식 접근 차단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재산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권리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표적 유혹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실직한 기독교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취업한 경우에도 차별과 제한된 승진 기회에 직면한다.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위협, 구타, 또는 상속권 박탈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무슬림 배경의 남성들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압박이 결합되면서 이주가 계속되고, 시리아 내 기독교 공동체는 약화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사망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6	90
2025	18	78
2024	12	81
2023	12	80
2022	15	78



시리아의 전체 점수는 78점에서 90점으로 12점 급등했는데, 이는 주로 폭력의 유의미한 증가로 인해 폭력 수준이 극도로 높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교회 공격, 북동부 지역에서의 기독교 학교 폐쇄, 기독교인 사망자 증가가 포함된다. 2024년 12월 정권 교체 이후 불안정과 무법 상태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지역 민병대와 기타 무장 행위자들의 확대로 위협, 갈취, 표적 공격이 증가했다. 많은 교회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활동을 축소했으며, 특히 2025년 6월 다마스쿠스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치명적 공격 이후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공격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추가 공격의 광범위한 위협과 고조되는 이슬람주의 급진화는 신자들이 기독교 상징물을 숨기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피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특히 이슬람교가 다수인 지역이나 검문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공격은 또한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하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위도 피하게 만들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2월 18일:** 하마의 그리스 정교회 대교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교회 재산과 종교 상징물(십자가)이 파괴되었고, 인근 기독교 공동묘지가 훼손되었으며 묘지가 파손되었다. 이는 2024년 12월 5일 이후 하마에서 이어진 폭력과 초법적 공격이라는 더 광범위한 양상의 일부를 이룬다.
- **2025년 6월 22일:** 다마스쿠스의 마르 엘리야스 그리스 정교회에서 자살 공격이 발생해 예배 중이던 기독교인 2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역사적인 교회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시리아 정부는 이 공격의 배후를 IS 세력으로 지목했다.
- **2025년 9월:** 쿠르드 당국은 새로운 쿠르드 교육과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북동부의 사립 기독교 학교 14곳을 폐쇄했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의 기독교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지역 역사에 변화를 주고 시리아 대학 진학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독교 공동체 내에 분노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가정은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피해 또는 몰수된 기독교인 사유재산 건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
2026	>27	100*	>10*	100*
2025	0	4	>10*	>1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시리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강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배제, 퇴거, 협박,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자들이나 보안 당국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와 기타 기독교 상징물을 점점 더 숨기고 있다. 개종자의 경우 기독교 상징물을 드러내는 행위는 가족과 공동체 맥락 모두에서 상당한 개인적 위험을 수반한다. 쿠르드 행정 아래 있는 카미슐리에서는 기독교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비교적 더 안전하다.

가족 영역

시리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공인된 기독교 결혼을 할 수 없으며, 이슬람식 결혼이 없으면 결합과 자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이혼에서는 샤리아법이 종종 무슬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대체로 자녀 양육권을 무슬림 부모에게 부여한다.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사가 없는 경우 특히 기독교 아동들이 이슬람 수업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시리아의 교육과정은 이슬람화되어 민족주의적 내용과 아사드 시대의 내용을 대체했고, 역사를 종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여성 인물들을 제거했다.

지역사회 영역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무슬림, 알라위파, 드루즈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적·가족적 위협과 때로는 폭력적 위협에 직면한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촉구하는 확성기 장착 차량이 다마스쿠스의 기

독교인 거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긴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 학생들은 차별과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제한을 겪는다. 2025년 9월 AANES의 아시리아계 사립학교 14곳은 의무적인 쿠르드 민족주의 교육과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쇄를 강요받았는데,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시리아의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었다.

국가 영역

2025년 3월 시리아는 샤리아법을 입법의 1차적 근원으로 지정하는 잠정 헌법을 채택했다. 국가는 명목상 인권과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샤리아법은 무슬림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한다. 국영 매체는 이슬람 관련 콘텐츠를 우선시하고 기독교인을 외면하며, 지역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기독교인들이 과거 정권에 충성한다고 비난한다.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두려움, 전반적인 보호의 부재, 소셜미디어에서의 협박을 포함한 중대한 사회적·치안적 압박에 직면하며, 이는 광범위한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영역

2025년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을 겪고 있다. 공격과 위협, 폭력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존재가 광범위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낳아, 모임, 여름 캠프, 집사 사역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회 및 교외 활동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박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교회 단체들은 위협, 비방, 또는 폐쇄의 위험에 처한다. 정치적 불안정, 제한된 보호, 지속되는 혼란은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 불확실성과 공포가 지속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시리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시리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시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주의 의제를 가진 혁명 세력 및 준군사 단체의 폭력적 공격으로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 개종자들이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감시를 받는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ICCPR 제23조 및 제26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이 기독교 남성과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CEDAW 제16조)

시리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다른 많은 종교적 소수자들도 시아파, 알라위파, 드루즈, 유대인, 야지디, 조로아스터교도 등 다양한 수준의 박해를 겪고 있다. 시아파, 알라위파, 드루즈 공동체는 수니파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아 왔는데, 이는 이들의 신앙이 이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알라위파의 경우 해당 아사드 대통령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지디와 조로아스터교도는 시리아 정권이 인정하지 않는 쿠르드계 종교에 속한다. 이들의 자녀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학교에서 이슬람을 배운다.



오픈도어의 시리아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 지도력을 강화하고, 나라가 계속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사역의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교회 파트너십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기회들을 제공한다:

- 문서·도서 보급: 성경, 스테디 바이블, 어린이 성경, 신약성경, 기독교 도서
- 훈련: 지도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제자훈련을 포함한 지도자 훈련, 그리고 청년 지도자를 위한 일반 및 전문 리더십 훈련
- 매우 스트레스가 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및 디브리핑, 청년·여성·남성·부부를 위한 훈련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긴급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
- 모든 교단을 초청하는 컨퍼런스를 후원하여 다양한 기독교 교단 간의 연대를 강화
- 건강한 관계에 관한 사역 훈련
- 신자들을 위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직업훈련
-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자들을 위한 기도 지원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위한 기도도 독려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